



2017년 EAI 대선패널 2차조사 주요 결과 및 평가

2017년 5월 25일

배진석_고려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I. 2017년 대선의 특징

1. 선거캠페인 기간 중 높은 지지후보 변동

- 지지후보 변동 비율 36.2%로 2012년 대선의 두 배 이상
- 야권후보 대세 속 다자구도였던 2007년 대선과 유사한 변동 패턴

2. 지지후보 결정 시점

- 46.8%가 투표 직전 1주일 내에 지지후보 결정
- 문재인 지지자는 조기 결정 비율 높고, 나머지 후보 지지자들은 막판에 결정

3. 지지후보 변동 경로: 누구에서 누구로?

- 안철수 12.6%p 지지 하락, 6.5%p는 홍, 5.7%p는 문으로 이동
- 홍준표, 가장 적게 잃고 가장 많이 얻어

4. 지지후보 변동 이유: 왜 바꿨나?

- “TV 토론에 실망”해서 안철수 지지율 4.9%p 하락
- 낮은 당선가능성(3.8%p)과 국정운영능력 불안(3.1%p)도 하락 원인

5. TV 토론은 투표에 정말 영향을 미쳤나?

- 확증편향은 대폭 감소, 지지후보 변경은 5-6배 이상 증가
- 안철수 TV토론 부진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

II. 투표 요인 분석

1. 인물 요인

- 호감도/도덕성/국정운영능력 모두 문재인 우세
- 문재인 호감도는 대선기간 중 개선: “싫다” 14.1%로 절반 가량 축소
- 안철수, 홍준표는 3분야 모두 각각 4위, 5위

2. 정당요인

- 더불어민주당, 선거기간 동안 8.7%p 늘어 46.9%로 압도적 1위
- 국민의당만 7.1%p 대폭 하락
- 문재인 지지자 중 10.7%는 정의당 지지



3. 이슈 요인

- “탄핵”이 48.6%로 압도적 1위, 연령대 낮을수록 영향력 커져
- “사드배치논란”은 홍준표 지지와 장노년층에 집중

4. 미디어 효과

(1) 선거정보 습득 미디어 유형

- 종편방송, 선거정보습득경로 1위
- 2030은 인터넷포털, 4050은 종편, 6070은 공중파
- 진보/중도는 종편 1위, 보수는 공중파 1위

(2) 선거정보 관련 미디어 접촉 빈도

- 나이 많을수록 적극적 선거정보 소비층 비율 높아
- “매일 수시로” 선거정보 접하는 70대는 20대의 두 배

(3) TV 토론

- 심상정, 유승민 투표자의 과반 이상은 TV 토론 때문에 지지후보 변경
- 안철수 투표자의 42.3%, “지지후보 변경은 안했지만 지지 약해져”

III. 평가와 전망

1.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 정도

- 문, 심, 유, 지지자들 만족도 90%대, 안, 홍 지지자들은 70%대
- 문재인 지지자들의 만족도는 2012년에 비해 크게 개선

2. 선거과정 및 결과 평가

- “정책선거였다” 53.5%, “후보간 비방 심했다” 60.4%, “지역주의 약화” 74.7%

3. 신임 대통령 국정운영 전망

- 88.4%가 “잘할 것”으로 전망, 2012년 박근혜 당선자 국정운영 전망보다 15.9% 높아
- 홍준표 지지층도 “잘할 것” 전망이 “못할 것” 전망보다 두 배 높아

4. 정계개편

(1) 민주당-국민의당 통합

- 반대 57.1% > 찬성 38.7%, 호남만 찬성 60.9% > 반대 33.9%
- 문재인 지지자들의 찬성비율이 다소 높아

(2) 자유한국당-바른정당 통합

- 반대 74.3% > 찬성 21.6%,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의견 높아
- 홍준표 지지자들만 찬성(52.3%)이 반대(43.8%)보다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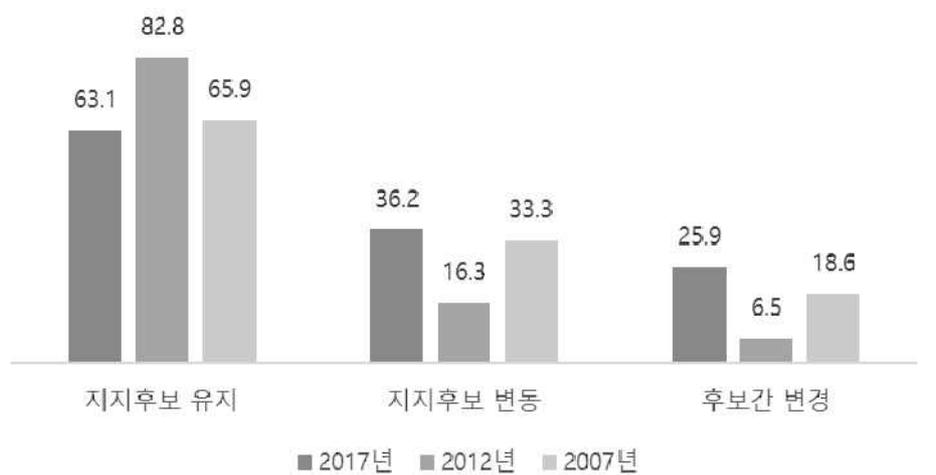


I. 2017년 대선의 특징

1. 선거캠페인 기간 중 높은 지지후보 변동

- 지지후보 변동 비율 36.2%로 2012년 대선의 두 배 이상
- 야권후보 대세 속 다자구도였던 2007년 대선과 유사한 변동 패턴

[그림 1] 캠페인 기간 중 후보지지 유지 및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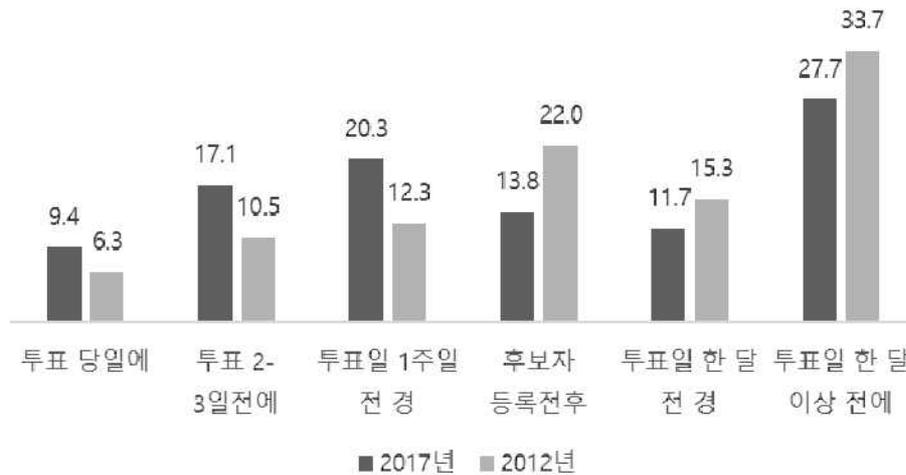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지지후보 변동의 폭이 매우 큰 선거였다. 후보자 등록 직후 실시된 선거 전 조사(4월 18일-20일)와 투표 직후 실시된 선거 후 조사(5월 11일-14일)를 비교했을 때 지지후보가 바뀌지 않은 응답자는 63.1%에 불과했다. 지지후보의 변동(지지후보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 포함) 비율은 36.2%나 됐다.
- EAI가 패널조사를 실시한 세 번의 대통령 선거 중 이번 선거가 변동의 폭이 가장 컸다. 2012년 대선은 후보등록 이후 82.8%가 지지후보를 선거 때까지 유지했고, 변동은 16.3%에 불과했다. 박근혜-문재인 양자구도로 치러진 2012년 선거에서 후보 간 지지 변동은 6.5%에 그쳤다.
- 이번 선거는 다자구도로 치러진 2007년 대선과 후보지지 유지 및 변동에서 유사점이 크다. 2007년 대선에서도 지지후보 유지는 65.9%, 변동은 33.3%, 후보 간 변동은 18.6%였다. 두 선거 모두 야권후보(문재인, 이명박)의 우세가 일찍부터 투표 때까지 유지됐고, 이에 맞서려는 여권후보(정동영, 홍준표)와 기타 후보들 간의 경쟁으로 유권자 후보지지의 변동이 심한 선거였다.

2. 지지후보 결정 시점

- 46.8%가 투표 직전 1주일 내에 지지후보 결정
- 문재인 지지자는 조기 결정 비율 높고, 나머지 후보 지지자들은 막판에 결정

[그림 2]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 투표할 후보 결정 시점 조사 결과도 캠페인 기간 중 높은 지지 변동을 뒷받침한다. 투표 1주일 전부터 투표 당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총 46.8%에 달했다. 후보등록 때까지 이미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비율은 53.2%였다.
- 2012년 대선에서 투표 직전 1주일 이내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29.1%에 그쳤다. 후보 등록 때까지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한 비율은 71.0%였다.

[표 1] 투표 후보 및 최순실 사태 이전 지지정당 별 투표할 후보 결정 시점

	투표 당일	투표 2-3일 전	투표일 1주일 전	후보자 등록 전	투표일 한 달 전	투표일 한 달 이상 전
투표 후보						
문재인	7.3	12.1	15.9	16.7	9.5	38.5
홍준표	9.3	23.5	27.7	11.6	16.1	11.8
안철수	12.7	11.4	17.5	11.5	18.2	28.2
유승민	10.2	37.8	34.5	6.0	7.2	4.3
심상정	17.9	27.2	33.6	6.5	8.4	6.3
최순실 사태 이전 지지정당						
새누리당	11.0	24.2	24.1	11.4	15.0	13.9
민주당	7.3	10.2	14.2	17.2	10.2	41.0
국민의당	11.1	24.0	26.0	11.3	7.3	20.2
정의당	10.5	16.5	14.8	14.8	11.1	32.2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38.5%는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문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의 60.5%의 결정 시점은 투표일 1주일 전부터 투표 당일까지였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의 약 80%는 투표일 1주일 전부터 투표 당일까지 집중됐다. TV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두 후보의 지지 결집이 이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최순실 사태 발생 이전 지지정당 별 투표 후보 결정 시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70%에 육박하는 비율은 후보등록 전후 시점에 이미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캠페인 내내 계속된 문재인 후보의 대세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 반면 구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투표 후보 결정 시점은 선거 막판까지 미뤄졌다. 약 60%의 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투표 직전 1주일 동안에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 분열되고 약화된 보수 후보들과 대안으로 거론된 중도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보수 여권 지지자들이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들의 투표 후보 결정 시점도 선거 막판에 집중됐다. 61.2%가 투표일 마지막 1주일 동안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

3. 지지후보 변경 경로: 누구에서 누구로?

- 안철수 12.6%p 지지 하락, 6.5%p는 홍, 5.7%p는 문으로 이동
- 홍준표, 가장 적게 잃고 가장 많이 얻어

[표 2] 지지후보 변동 경로

		투표후보 (선거후 조사, 5/11-14)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타	계
지지후보 (선거전 조사, 4/18-20)	문재인		0.3	0.5	1.1	2.0	0.2	4.1
	홍준표	0.4		0.1	0.1	0.0	0.1	0.7
	안철수	5.7	6.5		2.3	0.9	0.3	15.8
	유승민	0.5	0.3	0.3		0.1	0.0	1.2
	심상정	1.9	0.1	0.1	0.3		0.1	2.5
	기타	0.6	0.3	0.5	0.0	0.3		1.7
	지지후보없음	1.8	1.6	1.1	0.5	0.3	0.0	5.3
	모름/무응답	2.3	1.2	0.5	0.8	0.2	0.1	5.0
	계	13.1	10.3	3.2	5.0	3.9	0.8	36.2



- 지지후보 변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당수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홍준표, 문재인 후보로 대거 이동했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6.5%와 5.7%에 해당하는 안 후보 지지자가 각각 홍준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유승민 후보로 이동한 안 후보 지지자들도 전체 응답자의 2.3%나 됐다.
- 문재인 후보 지지자 중 이탈한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4.1%였고, 새로 유입된 지지자들은 13.1%였다. 이탈자 중 절반(전체 응답자의 2.0%)은 심상정 후보로 이동했지만, 심 후보를 이탈해 문 후보로 이동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1.9%로서 문-심 두 후보 간 지지자 이동 비율은 동률에 가까웠다. 문재인 후보로 신규 유입된 지지층의 절반 가까이(전체 응답자의 5.7%)는 구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었다.
-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률은 전체 후보자 중 제일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0.7%만이 홍 후보 지지를 철회했다. 그러나 홍 후보에게 유입된 신규 지지층은 전체 유권자의 10.3%로서 가장 높았다. 가장 적게 잃고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홍준표였다. 신규 유입된 지지층의 60% 가량은 구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었다.
-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률이 전체 후보자 중 제일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15.8%가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홍준표(6.5%), 문재인(5.7%), 유승민(2.3%) 후보로 지지를 이동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신규 지지층은 전체 유권자의 3.2%에 불과해, 합산 결과 12.6%p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4. 지지후보 변경 이유: 왜 바꿨나?

- “TV 토론에 실망”해서 안철수 지지율 4.9%p 하락
- 낮은 당선가능성(3.8%p)과 국정운영능력 불안(3.1%p)도 하락 원인

[표 3] 후보지지 철회 이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합계
소속정당에 실망	0.0	0.1	0.4	0.1	0.3	0.9
도덕성 문제	0.2	0.1	0.0	0.0	0.0	0.3
국정운영 능력 불안	0.3	0.0	3.1	0.0	0.4	3.7
참모나 주변 사람들 때문	0.2	0.0	0.8	0.0	0.1	1.1
정책이나 이념 때문	0.3	0.0	0.8	0.0	0.1	1.1
낮은 당선가능성	0.0	0.1	3.8	0.7	1.1	5.7
상대에 대한 심한 비방	0.1	0.1	0.2	0.0	0.0	0.4
TV 토론 실망	0.9	0.1	4.9	0.2	0.1	6.1
다른 후보가 좋아져서	1.0	0.0	0.8	0.1	0.2	2.0
기타	1.3	0.2	1.0	0.1	0.3	2.8
합계	4.1	0.6	15.7	1.1	2.5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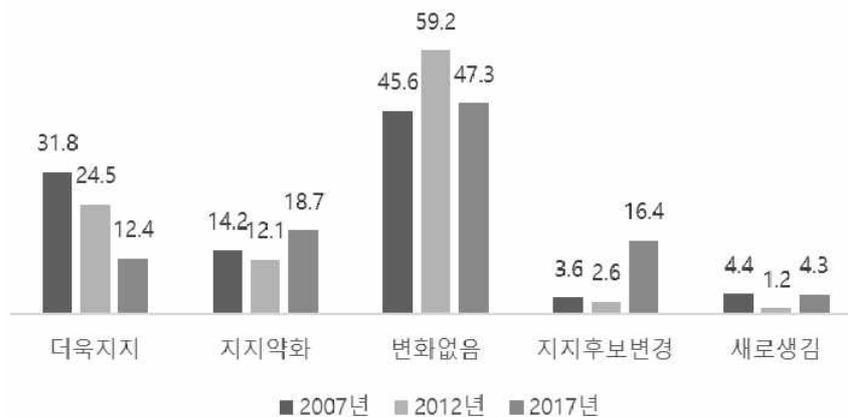


- 지지후보 변동 이유를 찾기 위해 기존 후보의 지지를 철회한 이유를 조사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철수 후보로부터 지지를 철회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5.7%에 달했다.
- 지지를 철회한 가장 큰 이유는 “TV 토론에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9%가 안 후보의 TV 토론 부진을 지지철회의 이유로 꼽았다. 그 밖에 “낮은 당선 가능성 때문”(3.8%), “국정운영 능력 불안 때문”(3.1%)이 그 뒤를 이었다.

5. TV 토론은 투표에 정말 영향을 미쳤나?

- 확증편향은 대폭 감소, 지지후보 변경은 5-6배 이상 증가
- 안철수 TV토론 부진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

[그림 3] TV토론이 후보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



- 이번 대선은 이전 두 번의 대선에 비해 TV 토론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된 선거였다. 확증 편향은 절반 혹은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지 후보 변경은 5-6배 이상 증가했다. TV토론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된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외연 확장의 절대적 수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표 지지층 내부 구성 비율을 따지자면 TV 토론의 영향력은 막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메이저 후보 중에서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의 부진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p.16 (3) TV토론 참조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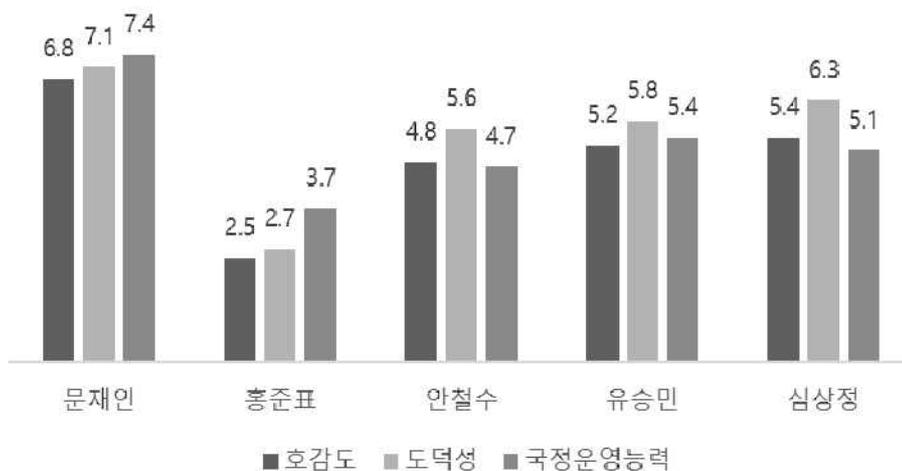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TV토론의 영향력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일종의 “확증편향”으로서 지지하던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되거나, 지지후보를 바꾸지는 않지만 지지가 약화되거나, 혹은 지지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TV 토론 때문에 지지후보를 변경하거나 지지후보가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도 TV토론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두 선거에서 TV토론으로 지지후보를 변경한 경우는 각각 3.6%, 2.6%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의 경우 기존보다 5-6배 이상 증가해 지지후보 변경으로 이어진 경우가 16.4%로 대폭 늘어났다. “좋아하던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응답 비율도 12.4%에 불과해 2007년, 2012년 대선에 비해 각각 1/3과 1/2 수준이었다.

II. 투표 요인 분석

1. 인물 요인

- 호감도/도덕성/국정운영능력 모두 문재인 우세
- 문재인 호감도는 대선기간 중 개선: “싫다” 14.1%로 절반 가량 축소
- 안철수, 홍준표는 3분야 모두 각각 4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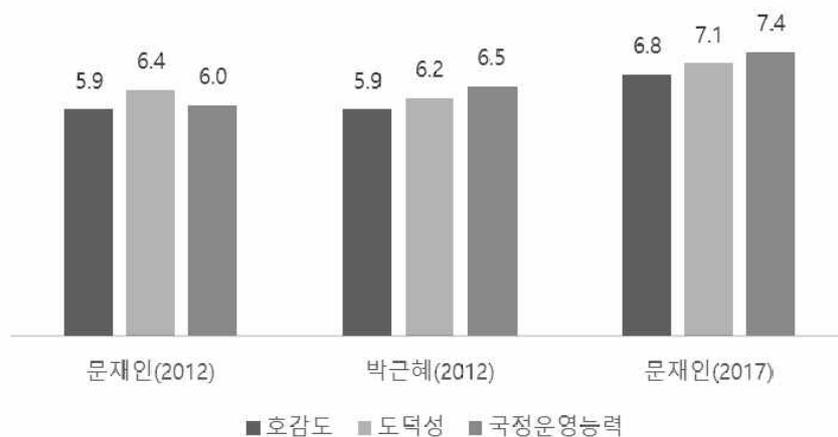
[그림 4] 후보 인물요인 평가



-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등 3개 분야의 질문 모두에서 문재인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세 분야에서 모두 5명 중 각각 4위와 5위로 조사됐다.

-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등 3개 분야의 질문 모두에서 문재인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세 분야에서 모두 5명 중 각각 4위와 5위로 조사됐다.
- 호감도: 문재인(6.8) > 심상정(5.4) > 유승민(5.2) > 안철수(4.8) > 홍준표(2.5)
- 도덕성: 문재인(7.1) > 심상정(6.3) > 유승민(5.8) > 안철수(5.6) > 홍준표(2.7)
- 국정운영능력: 문재인(7.4) > 유승민(5.4) > 심상정(5.1) > 안철수(4.7) > 홍준표(3.7)
-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호감도,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등의 분야에서 5명의 후보 중 2-3위를 유지했지만, 4, 5위에 머문 안철수, 홍준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림 5] 인물 요인 비교: 2012-2017 대선



- 문재인 후보의 호감도,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평가는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조사된 같은 항목보다 전 분야에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6.0에서 7.4로 1.4%p 증가했다.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자와 비교해도 이번 조사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세 분야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문재인 호감도 변화



-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호감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후보등록 직전에는 “싫다”가 27.3%였지만 선거 직후에는 14.1%로 대폭 감소했다. “좋다” 역시 51.4%에서 68.8%로 대폭 증가했다.

2. 정당 요인

- 더불어민주당, 선거기간 동안 8.7%p 늘어 46.9%로 압도적 1위
- 국민의당만 7.1%p 대폭 하락
- 문재인 지지자 중 10.7%는 정의당 지지

[그림 7] 정당지지 변화



- 선거 직후 실시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46.9%) > 자유한국당(12.7%) > 국민의당(10.0%) > 정의당(9.7%) > 바른정당(5.8%)
- 후보등록 직전과 비교할 때 국민의당만 7.1%p 대폭 하락했고, 나머지 정당들은 각각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폭은 더불어민주당 8.7%p, 자유한국당 4.1%p, 정의당 3.4%p 순서로 나타났다.

- 후보 등록 시점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0.3%에 이르렀으나 선거 직후 그 비율이 12.1%로 축소됐다.

[표 4] 지지정당 변동 경로

		지지정당 (선거후 조사, 5/11-14)							지지정당 없음	합계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기타			
지지 정당 (선거전 조사, 4/18-20)	더불어민주당		0.4	0.6	0.6	2.3	0.3	1.1	5.4	
	자유한국당	0.1		0.1	0.3	0.0	0.1	0.6	1.1	
	국민의당	4.7	1.6		1.0	0.3	0.1	1.6	9.2	
	바른정당	0.7	0.5	0.3		0.1	0.2	0.7	2.5	
	정의당	1.7	0.0	0.2	0.2		0.1	0.2	2.3	
	기타	0.8	0.3	0.3	0.1	0.4		0.8	2.6	
	지지정당없음	4.6	2.6	1.6	1.5	0.9	0.9		12.0	
	모름/무응답	0.3	0.3	0.0	0.1	0.0	0.0	0.3	1.0	
계	12.9	5.6	3.1	3.7	4.1	1.6	5.2	36.2		

-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정당 변화 경로도 이번 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대선과정에서 지지 정당을 바꾼 응답자는 36.2%로 조사됐다.
- 전체 응답자의 5.4%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지지를 철회했고, 상당수는 정의당으로 유입됐다. 전체 응답자의 12.9%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신규 지지자들은 주로 국민의당과 무당파에서 유입됐다.
- 자유한국당의 이탈률은 전체 응답자의 1.1%로 전체 정당 중 가장 낮았다. 자유한국당 신규 지지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5.6%로, 주로 무당파층과 국민의당에서 유입됐다.
- 국민의당의 이탈률은 9.2%로 전체 정당 중 가장 높았다. 이 중 절반 정도인 전체 응답자의 4.7%가 민주당으로 이동했고, 자유한국당과 무당파층으로도 각각 1.6% 이동했다. 반면 신규 지지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3.1%에 그쳤다.

[표 5] 거주지역 및 대선 투표후보 별 정당지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하는 정당 없음
전체	46.9	12.7	10.0	5.8	9.7	2.5	12.1
거주지역							
서울 (251)	51.4	8.9	12.1	4.7	10.4	2.4	8.9
인천/경기 (355)	44.4	10.8	10.0	6.5	11.6	1.4	15.2
대전/충청/세종 (116)	47.5	15.7	10.6	4.4	7.4	2.4	12.0
광주/전라 (113)	67.8	2.2	13.2	0.7	6.6	0.7	8.8
대구/경북 (115)	39.4	16.2	6.8	12.3	8.8	5.9	10.7
부산/울산/경남 (163)	40.3	21.7	5.2	4.8	9.2	3.7	15.1
강원/제주 (44)	36.1	19.9	15.7	10.4	10.5	2.1	5.3
대선 투표후보							
문재인 (614)	74.7	0.9	2.9	1.1	10.7	0.6	9.1
홍준표 (174)	4.0	69.5	4.1	2.6	0.8	2.2	16.7
안철수 (185)	17.2	5.4	45.6	8.3	2.9	2.9	17.3
유승민 (79)	24.9	0.0	3.2	49.9	8.2	0.0	12.2
심상정 (67)	34.1	1.1	3.1	1.5	47.4	2.6	10.1
기타 (14)	7.6	7.7	6.8	6.1	7.7	54.4	9.7

- 지역별 정당지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에서 1위로 조사됐다. 실제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한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앞섰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지역구가 밀집되어 있는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67.8%로 전체 지역 중 제일 높았고, 국민의당 지지율을 3배 가량 상회했다.
- 대선 투표 후보와 정당 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74.7%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고, 10.7%는 정의당 지지자였다.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69.5%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였고, 16.7%는 무당파였다.
- 나머지 세 명의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소속정당 지지자는 모두 50% 이하였다.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각각 17% 가량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로 조사됐다.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24.9%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고,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34.1%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다.

3. 이슈 요인

- “탄핵”이 48.6%로 압도적 1위, 연령대 낮을수록 영향력 커져
- “사드배치논란”은 홍준표 지지와 장노년층에 집중
- 유승민 지지층의 22.7%, “바른정당 12명 탈당” 때문에 유 지지 결정

[표 6]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월호 인양	송민순 회고록 논란	사드배치 강행 및 트럼프 사드배치 비용요구 논란	홍준표 후보 성범죄 모의 사건 (대지발정제) 및 막말 논란	바른정당 의원 12명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취업 논란	북한 주적 논란	“동성애 반대”논란	“김철수” “이명박 아바타”논란	안철수 후보 부인 서울대 채용의혹 및 보좌관 사적 용무 지시 논란
전체	48.6	4.4	1.1	8.4	8.3	3.4	2.3	4.8	1.5	2.7	2.2
연령											
19-29세	59.1	5.1	0.6	3.9	14.8	2.2	1.0	2.5	2.1	1.7	1.6
30-39세	52.7	5.1	1.0	7.1	5.0	4.3	3.5	1.8	1.0	5.5	3.2
40-49세	54.8	8.2	0.6	6.2	9.0	2.5	2.5	0.6	0.8	2.6	2.4
50-59세	42.6	2.7	1.1	10.6	5.0	4.9	2.2	10.4	2.2	1.2	1.4
60-69세	41.2	2.5	2.7	11.9	9.4	2.5	1.4	8.9	0.0	3.1	1.7
70세 이상	33.8	1.0	1.0	13.5	7.0	3.9	3.5	6.4	3.2	2.2	3.1
대선 투표후보											
문재인	63.0	6.0	0.7	5.0	9.1	1.7	0.2	0.5	0.5	2.6	2.8
홍준표	25.7	0.5	3.1	18.6	2.5	2.9	3.9	18.2	5.0	1.6	1.3
안철수	33.5	3.5	1.0	9.9	9.3	3.3	6.6	7.1	0.5	3.8	2.5
유승민	39.4	1.3	0.0	8.0	7.7	22.7	2.3	3.4	0.0	2.6	1.3
심상정	34.3	8.6	0.0	7.2	18.6	0.0	4.6	1.4	6.4	4.1	0.0

- 이번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친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48.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사드배치 강행 및 트럼프 비용요구 논란”이 8.4%, “홍준표 후보 성범죄 모의사건 및 막말 논란”이 8.3%, “북한 주적 논란”이 4.8%, “세월호 인양”이 4.4%로 그 뒤를 이었다.
- 탄핵 이슈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9세-29세의 59.1%가 탄핵 이슈의 영향력을 꼽았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어 70세 이상은 절반 수준(33.8%)으로 조사됐다.
- “사드배치” 논란은 고령대와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에서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 후보 “성범죄 모의사건 및 막말 논란”은 19세-29세 연령대(14.8%)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홍 후보와 토론을 거부했던 심

상정 후보 지지층(1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홍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가 이 이슈를 선택한 비율은 2.5%로 다른 그룹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 “북한주적 논란”은 홍준표 후보 지지자(18.2%)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세월호 인양”은 심상정 후보 지지층(8.6%)과 문재인 후보 지지층(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 “바른정당 의원 12명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은 역설적이게도 유승민 후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후보 지지층의 22.7%는 이 사건을 지지후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슈로 거론했다.

4. 미디어 효과

(1) 선거정보 습득 미디어 유형

- 종편방송, 선거정보습득경로 1위
- 2030은 인터넷포털, 4050은 종편, 6070은 공중파
- 진보/중도는 종편 1위, 보수는 공중파 1위

[표 7] 선거정보 습득 경로

	공중파 TV	종편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포털	주위사람	선거홍보물	SNS	팟캐스트/인터넷 방송
전체	25.1	30.8	3.9	0.8	26.0	1.6	0.7	6.0	4.2
연령									
19-29세	7.8	24.2	0.6	0.0	47.0	0.5	0.7	14.4	3.4
30-39세	14.4	30.4	2.0	1.5	34.7	0.0	1.4	8.1	7.0
40-49세	19.6	34.2	1.5	1.0	31.0	1.3	0.4	3.8	6.9
50-59세	30.9	32.7	5.9	0.0	19.3	2.2	0.3	4.0	2.9
60-69세	36.5	34.1	7.2	1.4	10.9	4.1	0.0	3.8	2.0
70세 이상	54.9	28.6	8.7	1.0	0.0	2.5	1.4	0.0	1.0
학력									
중졸이하	53.5	31.7	2.3	1.0	2.5	5.6	0.0	0.8	1.3
고졸	38.0	32.2	4.7	0.5	15.7	1.5	0.7	3.4	2.7
대재 이상	16.6	30.3	3.8	0.8	32.7	1.1	0.7	7.7	5.1
대선 투표후보									
문재인	18.8	31.4	2.0	1.1	31.8	1.1	0.4	6.7	6.6
홍준표	41.8	24.4	7.3	0.0	17.0	2.2	0.0	3.9	0.7
안철수	31.9	36.3	5.2	0.0	18.7	2.8	1.0	3.6	0.0
유승민	26.0	31.5	2.7	1.4	28.5	1.2	2.4	1.8	2.2
심상정	19.3	41.4	4.3	0.0	13.6	1.5	0.0	14.9	4.0
이념성향									
진보	13.6	32.9	2.5	1.4	30.8	1.4	1.0	8.9	6.8
중도	26.8	35.0	2.5	0.5	24.8	1.2	0.7	4.6	3.2
보수	35.9	22.7	8.1	0.3	22.5	2.1	0.2	4.2	1.8



- 선거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미디어 조사결과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방송이라고 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인터넷 포털 26.0%, 공중파 TV 25.1%로 조사됐다.
- 세대별로 선거정보 습득경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인터넷 포털 이용이 1위로 조사됐고, 40대와 50대는 종편방송, 60대 이상은 공중파 TV를 선거정보 주요 습득경로로 응답했다.
- 학력 역시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층은 인터넷 포털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학력이 낮을수록 공중파 TV를 선거정보 습득경로로 활용했다.
- 대선에 투표한 후보별 응답자 간에도 선거정보 미디어 활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인터넷 포털(31.8%)과 종편방송(31.4%)을 주로 활용했고,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은 다른 매체에 비해 공중파 TV(41.8%)를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은 종편방송을 1위로 꼽았다.
- 이념성향별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종편방송(32.9%)을 1위로, 인터넷 포털(30.8%)을 2위로 꼽았다. 종편 출범 당시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진보진영이 오히려 종편방송을 선거정보습득의 주요경로로 활용하게 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보도로 주목을 끌게 된 JTBC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종편방송을,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공중파TV를 1위로 꼽았다.

(2) 선거정보 관련 미디어 접촉 빈도

- 나이 많을수록 적극적 선거정보 소비층 비율 높아
- “매일 수시로” 선거정보 접하는 70대는 20대의 두 배

[표 8] 선거정보 접촉 빈도

	거의 접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한 번 정도	매일 수시로
전체	2.5	7.9	12.4	6.3	29.4	41.4
연령						
19-29세	1.2	12.0	19.4	5.7	34.5	27.2
30-39세	1.0	11.5	17.7	11.0	25.1	33.7
40-49세	2.0	8.8	7.5	6.6	31.3	43.8
50-59세	2.1	4.1	11.3	4.3	28.7	49.5
60-69세	2.3	2.8	12.4	5.8	34.5	42.2
70세 이상	9.0	7.1	4.2	3.4	20.6	55.8

-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매일 수시로” 혹은 “매일 한 번 정도”는 선거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세대별로 선거정보 관련 미디어 접촉 빈도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인 선거정보 소비층인 “매일 수시로”로 조사된 응답층에서 세대별 차이는 확연했다. 20대는 27.2%였지만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늘어나 7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두 배 가량인 55.8%로 조사됐다.

(3) TV 토론

- 심상정, 유승민 투표자의 과반 이상은 TV 토론 때문에 지지후보 변경
- 안철수 투표자의 42.3%, “지지후보 변경은 안했지만 지지 약해져”

[표 9] TV 토론을 가장 잘 한 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
전체	15.7	5.8	1.1	19.7	44.3	12.4
대선 투표후보						
문재인	23.4	0.9	0.1	13.7	50.8	10.1
홍준표	3.1	27.4	1.4	21.6	27.7	18.3
안철수	12.1	3.1	5.0	28.6	36.3	14.5
유승민	4.4	1.1	1.2	60.2	21.3	10.5
심상정	3.1	0.0	0.0	7.2	84.7	5.0

- TV 토론을 가장 잘 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44.3%)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유승민(19.7%), 문재인(15.7%), 홍준표(5.8%)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1.1%로서 다른 후보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마련인 안 후보 투표층에서도 안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지지층의 5%에 불과했다.

[표 10] TV 토론 이후 후보들에 대한 평가

	조사완료사례수	지지하던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지지후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약해졌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게 되었다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하는 후보가 새로 생겼다
전체	(1123)	12.4	18.7	47.3	16.4	4.3
대선 투표후보						
문재인	(605)	15.2	17.6	54.3	10.3	1.6
홍준표	(168)	12.6	8.4	47.5	24.3	6.8
안철수	(178)	2.6	42.3	46.0	4.3	3.2
유승민	(75)	15.4	9.4	18.8	44.1	12.3
심상정	(66)	11.4	8.8	18.7	50.8	10.4

- TV 토론 이후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지지후보가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는 20.7%로 조사됐다.



47.3%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고, 그 뒤를 이어 “지지 약화” (18.7%)“, “지지 강화”(12.4%)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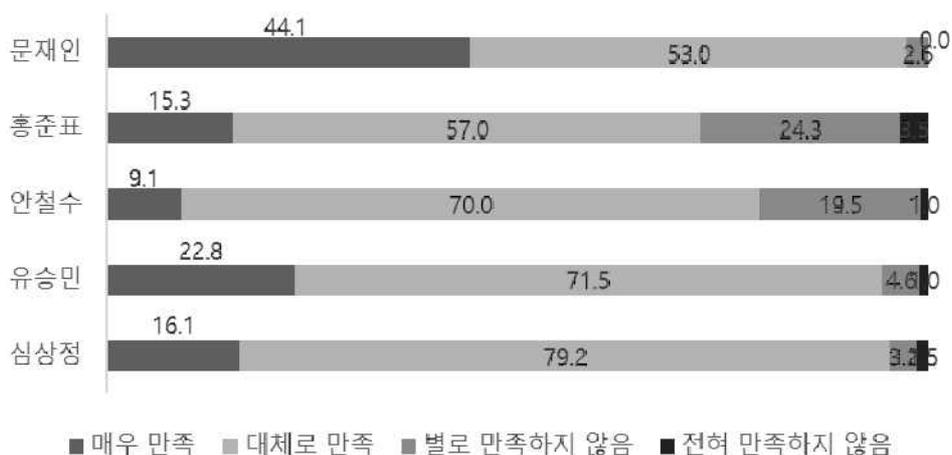
- 후보 별로 TV 토론이 투표에 미친 영향도 상이했다. 심상정(61.2%), 유승민(56.4%)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TV 토론 때문에 지지후보를 바꾸었거나, 지지후보가 없다가 TV 토론 때문에 새로 생겼다고 답했다. 이 두 후보가 선거 막판에 지지세를 올린 원인으로 TV 토론이 거론될 만한 조사결과이다. 홍준표 후보 투표층의 31.1%도 TV 토론 때문에 지지후보를 바꾸거나 신규 지지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투표층의 절반은 TV 토론 때문에 후보 지지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이한 점은 안철수 후보 투표층의 42.3%는 “지지후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III. 평가와 전망

1.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 정도

- 문, 심, 유, 지지자들 만족도 90%대, 안, 홍 지지자들은 70%대
- 문재인 지지자들의 만족도는 2012년에 비해 크게 개선

[그림 8]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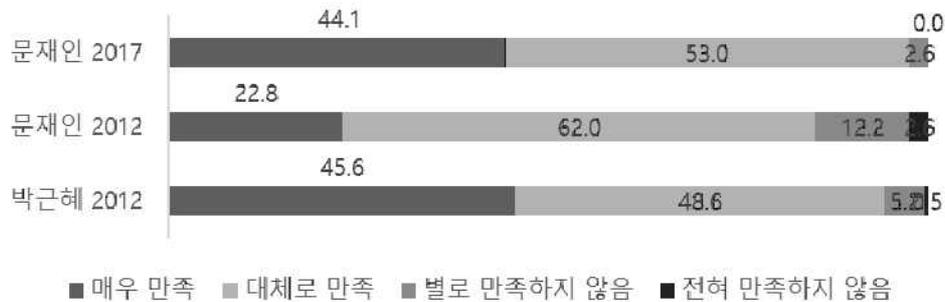
-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해서 투표했는지 조사한 결과도 흥미롭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은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을 합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95%



가량이거나 상회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 중 “만족한다”는 비율은 각각 79.0%, 72.3%에 그쳤다.

-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 44.1%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유승민(22.8%), 심상정(16.1%), 홍준표(15.3%) 순이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9.1%로 후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림 9] 후보 만족도 비교: 2012-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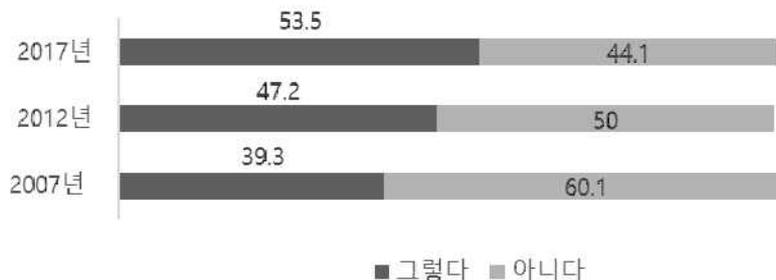


-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만족도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층의 만족도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 이번 조사된 문재인 지지층의 만족도는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조사된 문후보 지지층의 만족도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층(44.1%)은 2012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15%대였던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이번 조사에서 2%대로 줄어들었다.

2. 선거과정 및 결과 평가

- “정책선거였다” 53.5%, “후보간 비방 심했다” 60.4%, “지역주의 악화”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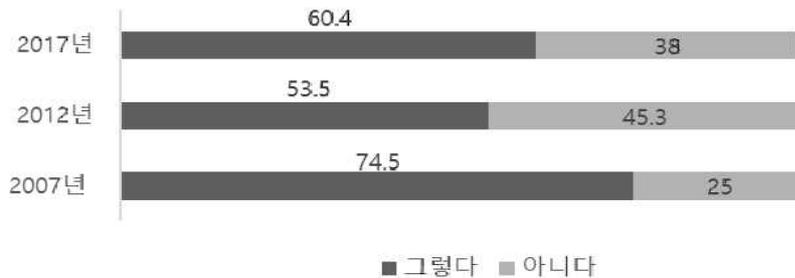
[그림 10] “정책선거였다”에 관한 평가



-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1)정책선거, 2)비방선거, 3)지역주의 등의 주제로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흐름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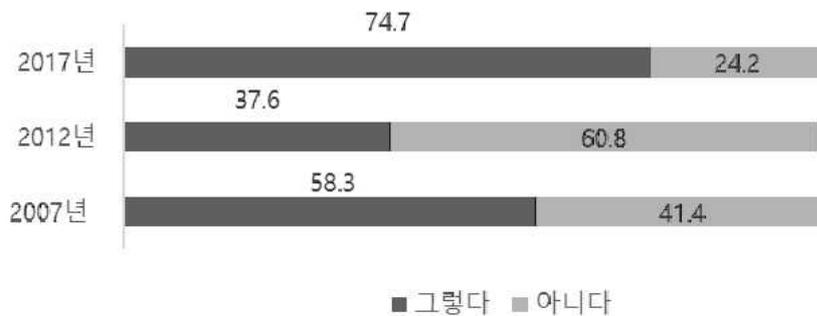
-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러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을 넘어 53.5%로 조사됐다. 이전 선거와 비교할 때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그림 11] “후보 간 비방이 심했다”에 관한 평가



- “후보 간 비방이 심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0.4%였다. 2007년 대선 때 74.5%가 비방이 심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2012년에는 53.5%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다소 그 비율이 늘어나 지난 대선보다는 비방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2] “지역주의 약해졌다”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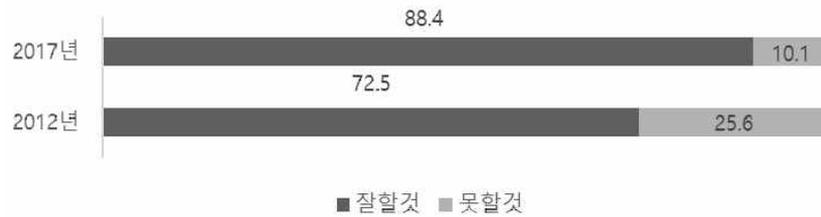


- “지역주의가 약해졌다”는 평가는 크게 개선됐다. 2012년 37.6%에 불과했던 지역주의 약화 주장은 이번 선거에서 두 배 가량 상승해 74.1%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지지를 얻고, 영호남지역의 일당독식구조가 붕괴된 것을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신임 대통령 국정운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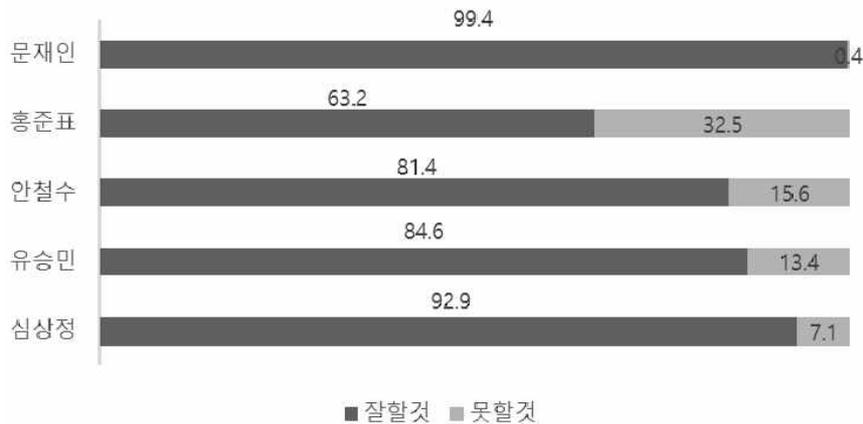
- 88.4%가 “잘할 것”으로 전망. 2012년 박근혜 당선자 국정운영 전망보다 15.9% 높아
- 홍준표 지지층도 “잘할 것” 전망이 “못할 것” 전망보다 두 배 높아

[그림 13] 신임 대통령(당선자) 국정운영 전망: 2012-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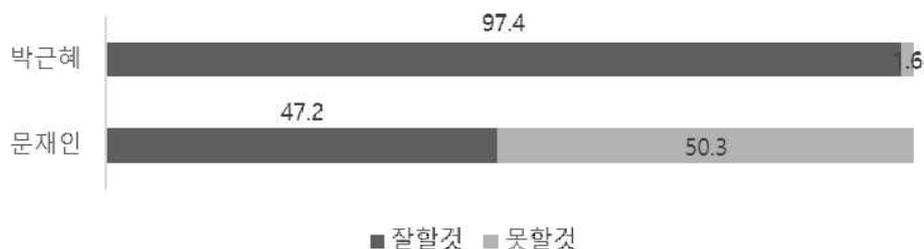
- 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질문에 88.4%의 응답자가 “잘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운영 전망에서는 72.5%가 “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이보다 15.9%p 높은 수치이다.

[그림 14]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전망: 지지후보별



- 지지후보별로 문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망에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문재인 지지층은 압도적으로(99.4%)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 그 뒤를 이어 심상정(92.9%), 유승민(84.6%), 안철수(81.4%), 홍준표(63.2%) 지지층 순으로 긍정적인 국정운영을 전망했다.
- 특이한 점은 선거과정에서 문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던 홍 후보 지지층에서도 “잘할 것”(63.2%)이라는 전망이 “못할 것”(32.5%)이라는 전망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그림 15] 지지후보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국정운영 전망(2012년)



- 2012년 대선 직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운영에 관해 “못할 것”(50.3%)이라는 전망이 “잘할 것”(47.2%)이라는 전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 2012년 선거와 비교할 때 선거에서 패한 진보, 중도, 보수 후보 지지층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점은 향후 국민통합 등의 과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정계개편

(1) 민주당-국민의당 통합

- 반대 57.1% > 찬성 38.7%, 호남만 찬성 60.9% > 반대 33.9%
- 문재인 지지자들의 찬성비율이 다소 높아

[표 11] “민주당-국민의당 통합 바람직” 에 대한 의견

	조사완료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1+2)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3+4)
전체	(1157)	11.7	27.0	38.7	33.8	23.2	57.1
연령							
19-29세	(173)	4.5	21.6	26.1	44.0	28.3	72.3
30-39세	(214)	7.3	24.2	31.5	38.1	28.5	66.6
40-49세	(271)	9.7	27.6	37.3	34.2	25.4	59.6
50-59세	(289)	16.8	33.2	50.0	26.2	19.0	45.2
60-69세	(121)	18.0	26.1	44.1	36.3	13.6	49.9
70세 이상	(89)	16.9	29.0	45.9	21.5	21.8	43.3
거주지역							
서울	(251)	7.6	26.0	33.6	37.4	25.3	62.7
인천/경기	(355)	9.5	27.7	37.2	33.1	26.1	59.2
대전/충청/세종	(116)	15.0	24.7	39.7	29.9	27.6	57.5
광주/전라	(113)	25.8	35.1	60.9	22.3	11.6	33.9
대구/경북	(115)	6.7	27.3	34.0	37.9	24.7	62.6
부산/울산/경남	(163)	13.2	24.4	37.6	38.8	17.5	56.3
강원/제주	(44)	10.7	23.0	33.7	31.6	28.1	59.7
대선 투표후보							
문재인	(614)	13.7	29.8	43.5	32.5	21.2	53.8
홍준표	(174)	9.7	22.5	32.2	36.7	23.7	60.4
안철수	(185)	13.2	24.5	37.7	34.6	22.9	57.5
유승민	(79)	6.1	27.4	33.5	32.1	30.5	62.7
심상정	(67)	4.3	20.3	24.5	49.4	26.0	75.5

- 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관한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7.1%로 바람직하다는 의견 38.7%보다 높게 조사됐다.
- 두 당의 통합에 관한 의견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이고 5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서 20대는

72.3%로 제일 높게 조사됐고,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떨어지다가 70대 이상에서는 43.3%로 떨어져 바람직하다는 의견(45.9%)에 비해 다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호남지역만 예외였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60.9%로 우세를 보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33.9%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대부분이 지역이지만,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로 지지가 이동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예외적인 의견은 설명이 가능하다.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0%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0%대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우세를 보였다.
- 대선 후보별 지지자들의 의견도 전체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통합에 찬성하는 문재인 지지자들(43.5%)의 비율이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찬성 비율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는데, 이는 호남지역 문재인 지지자들의 비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자유한국당-바른정당 통합

- 반대 74.3% > 찬성 21.6%,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의견 높아
- 홍준표 지지자들만 찬성(52.3%)이 반대(43.8%)보다 우세

[표 12] “자유한국당-바른정당 통합 바람직” 에 대한 의견

	조사완료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1+2)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3+4)
전체	(1157)	8.4	13.2	21.6	31.9	42.4	74.3
연령							
19-29세	(173)	3.1	10.7	13.9	35.9	49.8	85.7
30-39세	(214)	5.9	8.4	14.3	31.1	51.9	83.0
40-49세	(271)	2.9	12.5	15.4	29.5	51.9	81.4
50-59세	(289)	11.8	16.9	28.7	34.2	31.5	65.7
60-69세	(121)	13.9	19.2	33.0	37.3	25.6	62.9
70세 이상	(89)	18.4	12.1	30.5	21.4	37.5	58.9
거주지역							
서울	(251)	5.9	15.2	21.1	32.9	40.5	73.5
인천/경기	(355)	6.6	10.3	17.0	37.0	42.1	79.1
대전/충청/세종	(116)	12.3	10.0	22.3	32.0	41.0	73.0
광주/전라	(113)	4.6	8.3	13.0	31.0	52.7	83.7
대구/경북	(115)	10.1	16.7	26.7	31.9	40.8	72.6
부산/울산/경남	(163)	12.7	17.6	30.3	23.8	41.6	65.4
강원/제주	(44)	11.9	18.4	30.3	23.6	39.5	63.1
대선 투표후보							
문재인	(614)	2.9	8.7	11.6	34.0	51.0	85.0
홍준표	(174)	27.5	24.8	52.3	26.3	17.5	43.8
안철수	(185)	8.9	18.0	26.9	37.7	31.3	69.0
유승민	(79)	8.8	6.9	15.7	24.9	54.5	79.5
심상정	(67)	1.4	13.1	14.6	26.5	55.3	81.8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관한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74.3%로 바람직하다는 의견 21.6%를 크게 앞섰다.
- 두 당의 통합에 관한 의견은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 의견이 높았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반대 의견이 80%대로 압도적이었지만, 50대 이상은 60%대로 반대의견의 비율이 다소 줄었다.
- 지역별로도 두 당의 통합에 관한 의견은 비교적 비슷한 패턴으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이 제일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 지역이 30.3%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지역이 13.0%로 가장 낮았다.
- 대선 후보별 지지자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두 당의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홍준표 지지자들중에서 유일하게 52.3%로 반대보다 우세를 보였을 뿐이다. 다만 홍준표 지지자들 중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43.8%나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고, 분당 과정에서 발생했던 양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통합의 다른 한 축인 유승민 지지자들은 반대(79.5%)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찬성 비율은 15.7%에 그쳤다. 선거 막판에 바른정당 의원 12명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시도하면서, 바른정당 내 나머지 세력은 독자세력화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지지자들도 두 당 통합에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EAI 2017 대선 패널 2차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재)동아시아연구원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7년 5월 11 - 14일 (4일간) · 5월 11일: 13시-21시 · 5월 12일: 13시-21시 · 5월 13일: 13시-21시 · 5월 14일: 13시-21시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1차 조사 응답자(1,500명)
표집방법	1차 조사 응답자 대상 전수조사
표본크기	1,157명 · 유무선 RDD 518명, 액세스 패널 639명 · 유선번호 127명, 무선번호 1,030명
패널 유지율	77.1% (1차 응답자 총 1,500명 중 1,157명 응답 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2017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pm 2.5\%$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질문내용	본 보고서 본문에 제시

EAI 2017 대선 패널조사 연구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이한수(아주대)·임성학(서울시립대)·한정훈(서울대)·배진석(고려대)
- 조사팀 : 오승호·전주현 (이상 한국리서치)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남지현 연구기획실 연구원(02-2277-1683 내선112, jhnam@eai.or.kr)

